

'2019 동아리 & 학습 박람회' 열려



▲동아리 엑스포에서 연극 동아리 '낙산극회'가 주최한 먹방대회가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대회에 출전한 두 학생은 5분 동안 누가 더 닭 가슴살을 많이 먹는지 내기했다. 우승은 김성배(오른쪽) 학생에게 돌아갔다.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교내 일대에서 '2019 동아리 & 학습 박람회'가 열렸다. 동아리 박람회는 동아리연합회가, 학습 박람회는 학생장학팀이 주관했다.

동아리 박람회를 총괄한 고요찬(역사 4) 동아리연합회장은 "학생들이 동아리를 가입하기 전에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박람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리 박람회의 세부 프로그램은 크게 '동아리 투어'와 '동아리 엑스포'로 나뉘었다.

동아리 투어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됐다. 투어를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동아리 안내 책자가 배부됐다. 학생들은 전직 동아리연합회 국원들로 구성된 진행요원과 함께 인성관에 위치한 동아리방들을 탐방했다. 동아리 투어에 참여한 이현승(IT 1) 학생은 "투어는 책자에 실려 있지 않은 부분까지

볼 수 있어 유익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동아리 엑스포는 20일과 21일 상상마당에서 열렸다. 엑스포에는 39개 동아리가 참가했으며, 이들은 ▲공연·예술분과 ▲체육분과 ▲평면예술분과 ▲취미봉사분과 ▲학술분과 ▲종교분과 등 분과별로 지정된 자리에 부스를 마련했다. 각 동아리는 부스에서 동아리를 소개하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였다.

부스별 행사 외에도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펼쳐졌다.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피닉스'는 부원이 직접 행글라이더 탑승을 시연했고, 연극 동아리 '낙산극회'는 닭가슴살, 레몬 등을 빨리 먹는 사람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먹방대회'를 열기도 했다. 먹방대회 우승자 김성배(인문 2) 학생은 "즐거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해 우승한 것 같다. 신입생들이 엑스포에서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회장은 "엑스포 기간에 비가 내렸지만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모든 동아리 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에 입부해 학교생활을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상상관 로비에서는 학습 박람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학생장학팀, 대외홍보팀 등 행정부서가 ▲장학제도 ▲독서모임 ▲홍보대사 ▲IPP사업단 등을 안내 및 홍보했다. 행사를 담당한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상관 로비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교내 프로그램을 문의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했다. 학생들이 학습 박람회에서 습득한 정보를 활용해 학내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희승 기자

yoonhg@gmail.com

'상상빌리지 개관식' 성공적으로 끝마쳐

지난 3월 7일, 상상빌리지 및 연구관 상상마루 일대에서 '상상빌리지 개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한 총장·이종훈 한성학원 이사장·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교내·외 인사 및 지역주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1부 '개관식 및 상상빌리지 투어'와 2부 '리셉션'으로 구성됐다. 1부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 ▲내·외빈 소개 ▲현황 보고 ▲환영사 및 감사인사 ▲축사 ▲감사패 및 공로상 시상 ▲상상빌리지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사 중 이상한 총장은 "상상빌리지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우리학교가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사다. 학생들이 좋은 시설을 갖춘 상상빌리지를 이용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학교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부 행사는 ▲축하 케이크 커팅식 ▲귀빈 축사로 꾸며졌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 정호재(무역 4) 총학생회장은 "상상빌리지 건립과 같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우리학교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상상빌리지는 지상 7층과 지하 2층으로 구성된 연면적 6,770.70㎡ 규모의 최신식 기숙사다. 2인실 162실, 1인실 2실로 이뤄져 총 328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독서실·세탁실·휴게실·세미나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추가로 기숙사 내 편의시설은 입학생이 아닌 재학생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상상빌리지에는 학생들이 24시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숙사 입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교내·외 인사 및 대학원 동문 20여 명이 리셉션에 참석해 케이크 커팅식에 임하고 있다. 이들은 커팅식 후 연구관 상상마루에서 가벼운 식사를 가졌다.

한성대학교 제60&61기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안내

지원 자격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이하인 남·여
- 학군사관 60기: 2학년 남·여학생
- 학군사관 61기: 1학년 남·여학생

ROTC 장점

-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 군사 훈련비 및 매달 품위유지비 지급
- 16만 명의 ROTC 동문과 인맥 형성
- 국내·외 문화 탐방
- 다양한 문화혜택 지원
- 리더십 함양 & 체력 및 자신감 향상

지원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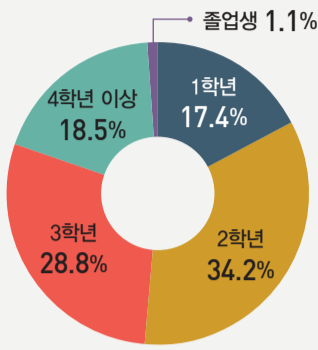
- 기간: 2019년 3월 1일~ 3월 31일
- 인터넷 지원접수: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www.armyofficer.mil.kr)
- 한성대 학군단 방문접수: 서류 제출
- * 인터넷 접수 후, 학군단을 방문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접수 완료

- 58기 연대장 김병수 후보생 : 010-9205-3587
- 58기 정훈과장 강인정 후보생 : 010-8596-5410
- * 여성장교에 관심있는 여학우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59기 황지원 후보생 : 010-7710-5262
- 한성대 학군단 : 02)760-4178



수년간 지속된 우리학교 행정 논란...대학본부에게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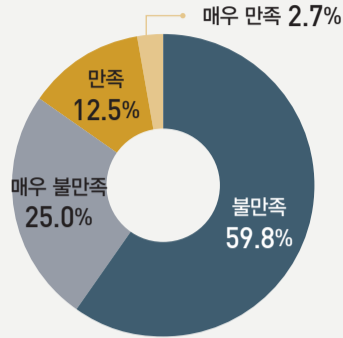
Q. 당신은 현재 몇 학년입니까?
(휴학생의 경우, 재학 당시 최종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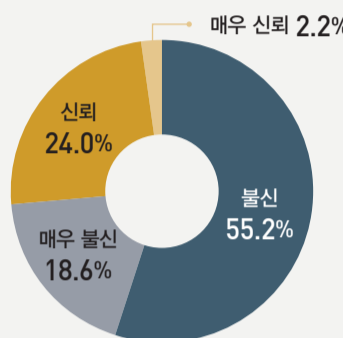
* 본 설문지의 표본은 184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32명, 2학년 63명, 3학년 53명, 4학년 이상 34명, 졸업생 2명이 응답했습니다.
*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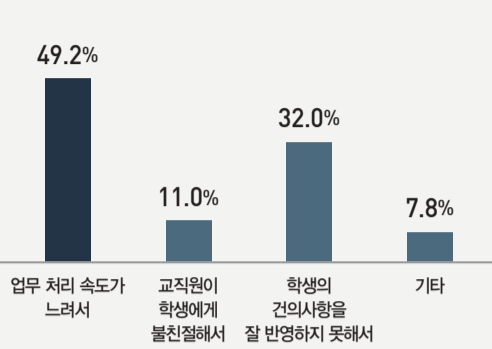
Q. 당신은 우리학교 행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Q. 당신은 우리학교 행정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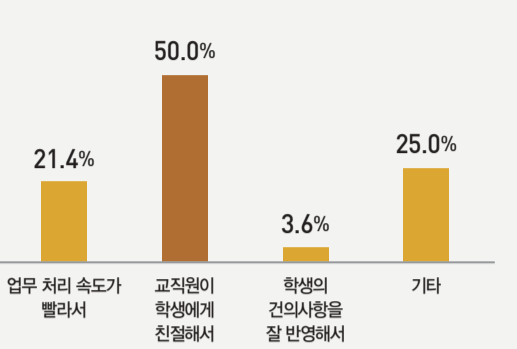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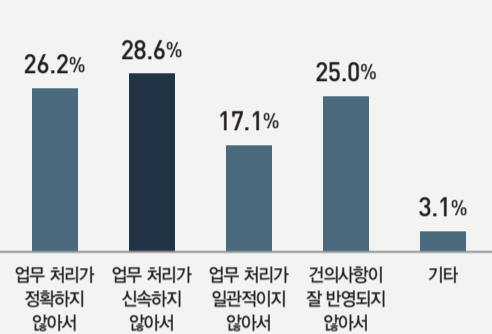
(복수응답)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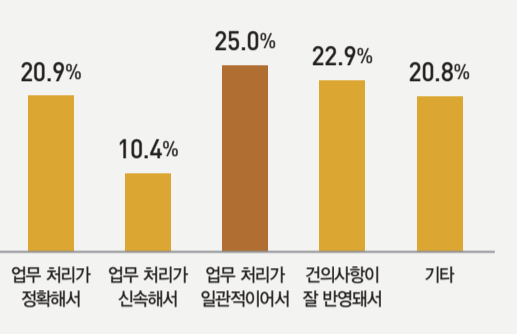
(복수응답)

불신 이유



(복수응답)

신뢰 이유



(복수응답)

지난달, 수강신청 잔여 인원 부족으로 서면신청을 하기 위해 100명 가까이 되는 디자인대학 학생이 학교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한 사태가 발생했다. 연이어 1차 수강정정기간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트랙제와 교직원·조교들의 행정서비스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되는 등 불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사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에 걸쳐 본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우리학교 행정 만족 및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실제로 대다수의 학우는 우리학교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족도 조사의 응답은 '불만족(59.8%)'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매우 불만족(25.0%) ▲만족(12.5%) ▲매우 만족(2.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행정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서(49.2%) ▲학생의 건의사항을 잘 반영하지 못해서(32.0%) ▲교직원이 학생에게 불친절해서(11.0%) ▲기타(7.8%) 순이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교직원이

학생에게 친절해서(50.0%) ▲기타(25.0%)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서(21.4%) ▲학생의 건의사항을 잘 반영해서(3.6%)로 나타났다.

신뢰도 조사는 '불신(55.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뒤로 ▲신뢰(24.0%) ▲매우 불신(18.6%) ▲매우 신뢰(2.2%)의 응답을 보였다. 학교 행정에 불신하는 이유는 ▲업무 처리가 신속하지 않아서(28.6%) ▲업무 처리가 정확하지 않아서(26.2%) ▲건의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아서(25.0%) ▲업무 처리가 일관적이지 않아서(17.1%) ▲기타(3.1%) 순이었다. 신뢰하는 이유로는 ▲업무 처리가 일관적이어서(25.0%) ▲건의사항이 잘 반영돼서(22.9%) ▲업무 처리가 정확해서(20.9%) ▲기타(20.8%) ▲업무 처리가 신속해서(10.4%)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서 드러난 학우들의 불만사항은 크게 '장학금 지급 지연', '수강신청 잔여 인원 부족 사태', '교직원·조교의 근무 형태'로 분류됐다.

장학금 지급 지연 논란...
해결 위한 본부의 노력
장학금 지급 지연 항목에서 가장

큰 불만이 표출된 것은 '근로면학장학생 장학금(39.3%)', '튜터링 장학금(14.3%)'이었다.

이름을 요청한 한 학우는 "근로면학장학금이 단 한 번도 공지한 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다. 학기 중 한 번, 종강 후 3주 뒤에 지급되는 것도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도 못 지키고 항상 연기됐다"고 말했다. 또한 학우들은 지난 학기에 진행했던 한성튜터링 장학금이 다음 학기 개강에 입학해서 지급된다는 것에도 불만을 느꼈다. 또 다른 학우는 "한성튜터링 장학금의 '연제 입금될지 모른다'는 것"도 불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준식(학생장학팀) 팀원은 "그동안 근로면학장학금을 일괄적으로 결재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면학생의 출근부를 늦게 낸 부서가 있어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총학생회와의 미팅 결과, 앞으로 출근부를 늦게 낸 부서는 추후에 따로 결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때 출근부를 제출한 부서의 근로면학생은 지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장재혁(교육혁신원) 팀장은 "한성튜터링 장학금은 총 지급액이 커서 지급 절차가 다른 장학금에 비해 복잡하다. 절차 중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지연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확한 지급일을 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수강신청 잔여 인원 부족, 대학본부의 입장?

금번 디자인대학 서면신청 사태와 같이 인기 많은 트랙의 경우, 잔여 인원 부족으로 '전공필수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했다. 또한 16학년 이전 복수전공자도 1차 수강정정기간부터 복수전공 강좌를 수강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인원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됐다.

이에 대해 조세홍 교무처장은 "대학본부에서는 학생들의 강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장바구니 제도를 시행해 이를 토대로 분반을 결정한다"며 "장바구니 수요가 정확하지 않아 반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장바구니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우들은 설문조사에서 "전공필수 강좌를 수강하지 못해 계절학기나 초과 학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기가 많은 트랙·학과는 유입 장벽을 높여서 인원을 제한하거나 분반을 증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월 디자인대학 서면신청 관련 인터뷰에서 김기호(디자인대학 교학팀) 부장은 "교무행정과 수업행정 등의 정책은 교무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각 트랙과 학과는 교무처 허가 없이 전공 강좌 분반을 마음대로 증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무처장은 "교무처는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분반 증설 요청을 최대한 허용해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름의 한 학우는 "수강신청 잔여 인원 부족으로 밤샘 서면신청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학본부, 행정 민원 해결책 밝혀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우들은 직원들의 태도에 만족한 반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학우들은 이들의 근무 행태를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우리학교 행정 서비스는 크게 ▲불친절 ▲근무태만 ▲근로면학생·조교의 업무 인지도 및 전문성 부족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황 팀원은 "학생장학팀은 작년 2학기부터 근로면학생을 업무에 투입하기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각 부서는 특성에 따라 근로면학생들에게 세부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영우(총무인사팀) 팀장은 "총무인사팀은 이미 조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업무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에 각 부서 내부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평가 체크리스트에 '친절성' 항목을 추가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이 교직원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현실화하기에 여러 제약 요소가 있어 중장기적인 도입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장선아 기자

sun0913@hansung.ac.kr

#한성 #타임라인

무선 인터넷 접속 SSID 변경돼

지난 2월 18일부터 우리학교 무선 인터넷 접속 SSID가 변경됐다. SSID는 무선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네트워크 고유 식별 명칭을 뜻한다. SSID는 기존 'hswlan'에서 'hansung'으로 변경됐다.

변경 전후 차이점은 네트워크 공개 여부에 있다. 'hswlan'은 숨겨진 네트워크로, 단말기 내 네트워크 설정에서 확인할 수 없어 직접 이름을 입력해야만 연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hansung'은 별도의 입력 없이도 네트워크 설정에 바로 표시돼 더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또, 사용 메뉴얼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처음 무선 인터넷 연결 시 사용자가 본인의 단말기 전용 메뉴얼을 직접 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네트워크 'HANSUNG-INFO'에 접속하면 사용자의 단말기에 적합한 메뉴얼이 바로 떠 접근이 용이해졌다.

한편, 'hswlan'은 오는 6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 운영팀(정보화팀) 팀원은 "'hswlan'을 사용하는 학내 구성원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변경 직후 사용을 제한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새 SSID 연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보화팀으로 연락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교육혁신 성과 공유 세미나 개최

지난 2월 22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전국 대학 관계자 30여 명이 대상으로 '제1회 HSU 교육혁신 성과 공유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는 우리대학이 트랙제 도입 3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트랙제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총장 인사말 ▲한성 트랙제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세홍 교무처장은 본교 트랙제의 도입 배경과 운영방식을 소개한 후, 운영 결과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중 운영 현안으로는 ▲학습역량 강화 지원 ▲트랙제 시간표 편성 ▲트랙제 등록금 책정 등을, 향후 추진과제로는 ▲학생진로지도 혁신 ▲창의융합교육 고도화 ▲학생들의 소속감 증진 ▲취업역량 증진 등을 제시했다.

조세홍 교무처장은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는 교수들이 각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트랙별 진로지도 활성화와 자료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설립자故 김의형·이희순 추념식 엄수

지난 3월 6일, 미래관 DLC에서 학교법인 한성학원 설립자故 김의형 박사 36주기와故 이희순 여사 1주기 추도식이 엄수됐다. 추도식은 ▲개식사 ▲고인에 대한 묵념 ▲설립자 약력 보고 ▲추도사 ▲예배 ▲헌화식 순으로 거행됐다.

추도식에서 이종훈 한성학원 이사장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예배는 박종길(서빙고 온누리교회) 목사의 인도 하에 ▲찬송가 ▲성경봉독 ▲설교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훈 이사장은 추도사 중 "두 고인은 설립자로서 한성학원에 평생 헌신하며 여생을 보냈다. 우리는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한성학원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두 고인이 이곳을 늘 지켜보며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故 김의형 박사는 1945년 한성학원을 설립한 후, 1953년부터 한성학원 초대 이사장, 한성여자대학 초대 학장 등을 역임하다 1983년 80세의 일기로 영면했다.故 이희순 여사는 한성학원 설립 후 1971년부터 한성학원 이사장, 한성대학교 2대 학장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98세의 일기로 영면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익명이 가져온 대학가의 빛과 그림자

병주고 약주는 익명 커뮤니티

디자이너사이드, 네이트판,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각종 포털 사이트의 카페...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익명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익명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정보를 전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터넷 접근이 더 쉬워지면서 '익명'의 정보는 우리의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됐다.

이에 따라 익명 커뮤니티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개방된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같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소속을 인증하고 익명성을 보장받은 채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등장한 것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이 그 예시다.

이러한 형태의 익명 커뮤니티는 대학가에서 고발의 장이 되기도 한다. 같은 집단에 소속된 이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부당한 일을 알리거나, 집단 내 불합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 우리학교에서 발생한 'A학과 면접 사건'이 있다. 지난 17일,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A학과 학생회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면접을 본 학생들은 익명의 게시글을 통해 '고학번 선배가 늦은 시간에 오라고 하면 울 것이나, 선배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할 것이나' 등의 질문을 했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들은 '면접 응시자가 답변을 하면 비웃듯이 대꾸하거나 말을 끊는 등 면접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며 해당 학과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A학과 학생회에서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익명 게시판에서는 '잘못의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사과문이 아닌 변명문'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A학과 학생회장은 다시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2017년, B학과에서 엠티를 가는 신입생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한 것이 우리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고발된 일이 있었다. 당시 B학과 학생회는 즉각 사과문을 게시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해 장기자랑 참가 여부를 '자유'로 변경했다.

이처럼 익명 게시판은 작성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 이용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가 내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이에 대해 임명호(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익명성이 더 잘 보장된다고 느낀다. 또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공론화되고 심각성도 쉽게 인식돼 익명 커뮤니티에서 부조리를 더 잘 폭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자의 신상이 보호되는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달 초 이슈가 됐던 '한국교통대학교(이하 한국교통대) 에이즈 사건'이 그 예시다. 지난 2월, 한국교통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에이즈 감염자인데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게시자는 다시 '에이즈에 감염된 학생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기숙사에 입사하려 한다. 학교 측에 피검사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항의하자'며 자작극을 벌였다. 한국교통대 측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학생은 장난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떨었으며, 한국교통대 대학본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같이 익명으로 작성된 허위 정보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우리학교 이수현(인문 3) 학생은 "학생들은 주로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파급력이 크다. 따라서

게시물이 잘못된 정보여도 학생들이 쉽게 휩쓸릴 수 있어 문제"라고 의견을 말했다.

임 교수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것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또, 익명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들이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 오프라인에서보다 죄책감을 적게 느끼는 '방패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의 신뢰성보다는 내용 자체를 기억하는데, 이를 '슬리퍼 효과'라고 한다. 이 때문에 익명 게시물의 정보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잘 선통되는 것"이라고 원인을 밝혔다.

한편, 익명 게시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권영우(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우리는 때때로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익명성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개개인의 의식 개선과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빅딜' 예상된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로 종료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양국 간 합의 실패로 회담은 결렬에 그쳤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지 않고 양국이 지향하는 목표만 정의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합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회담의 합의 내용을 12개 의제로 세분화해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어 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영변 외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비밀 핵시설, 즉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ICBM,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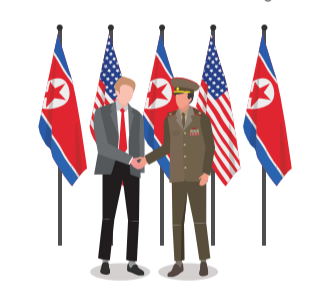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의제를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했다"며 "실무협이가 불충분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개최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강제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완벽하게 비핵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며 "북한에게는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된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북한을 대외 무대로 이끌어내 그들의 목표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은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김전 차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북한에게는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양국은 비핵화를 위해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지렛대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들을 강구해 북미 간 입장 차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대학생 10명 중 5명, 교재 불법 복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생 71% 불법임을 인지...교재 대여 서비스 등 대책 강구돼

최근 대학가와 출판계가 교재 불법 복제로 때아닌 진통을 겪고 있다. 교재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발표한 '대학교재 불법

복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응답자(3,032명) 중 51.6%가 교재를 복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보호원이 작년 실시한 불법 복제 단속에서는 302건의 사례를 적발했으며

15,000여 점의 불법 복제물을 수거 및 폐기했다.

이렇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교재 불법 복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고액의 교재비를 들 수 있다.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한 학기 교재 값으로 평균 8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대학생의 평균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24.3%)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저렴한 불법 복제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구내서점을 운영하는 정일재 사장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무단 복제된 교재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봤다. 이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심정으로 못 본척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 교재와 같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무단 복제를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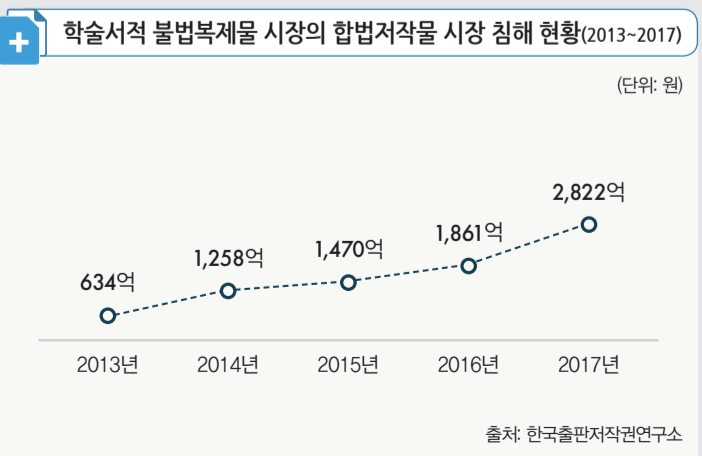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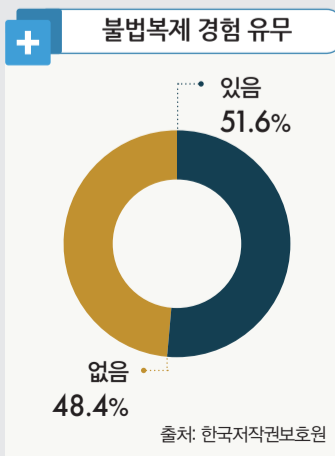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당국은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임배(한국학술출판협회) 사무국장은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의 71%는 복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즉, 대학생 대다수가 교재 복제의 불법성을 알고서도 불법 복제를 자행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들 모두를 범 죄자로 몰게 될 우려가 있어 당국이 단속에서 소극적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출판 업계는 계속되는 교재 무단 복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4일 한국출판저작연구소가 발표한 '출판시장의 분야별 매출 규모와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침해 규모에 따르면,

학술서적 시장은 2017년 불법 복제물로 인해 2,822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2013년에 발생한 634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호원,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출판단체는 지난 3월 4일부터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 '대학교재 불법복제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은 학기 단위로 강의 교재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진(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차장은 "일부 강의에 한해 수강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교재를 빌려줘,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승 기자
yoohing@gmail.com





요즘 '레트로'한 옷은 동묘 구제시장에 있다

최근 2030세대의 패션 트렌드로 자주 언급되는 '뉴트로(New-tro)', 새로움의 뉴(new)와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retro)의 합성어인 이 단어는 2019년 현재, 젊은 세대의 핫한 패션 키워드로 통한다. 이 같은 열풍에 힘입어 젊은 '패션 피플'들로 하여금 발걸음하게 만드는 장소가 있다. 바로 '동묘 구제시장'이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왜 뉴트로에 주목하는 것일까. <한성대신문>이 동묘 구제시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동묘 구제시장의 '중심'에 가다

동묘 구제시장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동묘앞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 시장 입구부터 LP판, 중고도서 등이 진열돼 구제시장 내음이 물씬 풍긴다. 점심쯤 방문한 동묘 구제시장에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수많은 옷가지와 산처럼 쌓인 옷더미가 거리를 수놓고 있다. 행인들은 마땅한 탈의실이 없어서 눈대중으로 옷 사이즈를 맞춰보기 부지기수다. 이곳에서는 옷더미에서 옷을 꺼내 상체에 대보는 이, 검은색 비닐봉투에 옷을 한 아름 담아가는 이들이 한 데 엉켜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곳에서 만난 대학생 A씨(21)는 “동묘에 처음 와봤다. 옷이 정말 많아서 어떤 옷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면서 “대부분 저렴해서 가볍게 입기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죽재킷, 털코트, 등산용 패딩 등 고가의 의류가 할값에 팔리고 있었다. 골목 사이에는 숨겨진 구제 옷 가게가 있다. 동묘공원 옆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골목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에 패딩, 가방, 신발 등이 진열돼 있는데 그 풍경이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꽤 예쁜 골목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나들이객들의 포토존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행인들이 옷무덤에서 옷을 고르느라 분주한 모습. 옷무덤은 옷을 마치 무덤처럼 길바닥에 쌓아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묘가 처음인 당신에게

처음 동묘 구제시장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시장통이다. 북적이는 인파에 당황하기 십상이고, 자칫 옷 구경 대신 사람 구경만 하다가 올 수도 있다. 특히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 더욱 북적이는데, 상인들은 대목을 잡으려고 평일보다 더 많은 옷을 들여와 쌓아놓곤 한다. 차분히 옷을 보고 싶다면 평일에, 더 다양한 옷을 보고 싶다면 주말에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한적한 이른 아침에 구제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명심하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다.

구제시장 곳곳을 누비다보면 구제 전문 매장, 옷무덤 등 구제의류를 파는 곳이 많은데 이곳에 처음 방문한 사람은 이 중 어디서 옷을 구매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된다. 필자는 구제 전문 매장보다 옷걸이에 걸린 옷, 옷걸이에 걸린 옷보다 옷무덤을 노리는 편을 추천한다. 옷무덤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곳이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할인율이 더 큰 편이다. 실제로 재킷의 경우, 구제 전문 매장에서 2~3만 원대였던 반면, 옷무덤에서 건진 것은 만 원 이하였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면 살살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옷이 헤지거나 오염된 부분이 있다 해도 실망하지 말자. 이는 값을 깎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잠시 넣어두고 다른 옷을 3, 4벌 정도 마련해둔 후 이들 중 고민하는 모습을 상인에게 보여준다면 그가 먼저 흥정을 제안할 것이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흥정에 응한다면 예상치 못한 '득템'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요즘에는 계좌이체도 가능하니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뉴트로를 재해석한 2030

구제시장을 둘러보다보면 통이 큰 청바지, 청치마 등 90년대 즈음에 유행했던 복고풍 옷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나이 지긋한 5060세대들이 찾을 것만 같은데,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복고풍 재킷을 걸쳐보며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 청재킷을 구매하기 위해 한참 옷무덤을 뒤적인 대학생 B씨(21)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등의 영향으로 빈티지 패션에 관심이 많아졌다”며 “빈티지 패션이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소셜 커머스 티몬의 경우, 올해 복고풍 의류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주 고객층인 2030세대의 뉴트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2030세대에게 뉴트로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이영환(건양대학교 마케팅비즈니스학과) 교수는 “5060세대는 추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추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뉴트로 문화를 소비한다. 반면, 2030세대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의 문화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즐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뉴트로 문화 확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경기가 불황일수록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큰 만큼 당분간 뉴트로 열풍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이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련된 복고인 힙트로(Hip-tro)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미 패션 업계에서는 젊은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힙트로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남준, 그를 기억하는 방법

공간은 물질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다. 사물, 사람과 같이 수없이 많은 요소가 공간 안에 존재하고, 공간이 소멸됨에 따라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공간이 소멸되더라도 그 자리를 오롯이 지키는 것이 있다. 바로 '기억'이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과거의 공간과 그 안에서의 일을 회상하고, 이를 '추억'이라 이름 붙여 고이 보관한다. 이런 기억의 속성을 이용해 예술가들이 작고한 선배 예술가의 생전 기억을 따라가며

공간을 채운 전시, '내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를 소개한다. 이 전시는 창신동에 위치한 백남준기념관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열리며, 관람비는 무료다. 전시가 열리는 백남준기념관의 또 다른 이름은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이다. 실제로 그 이름처럼 기념관에는故 백남준의 삶과 예술에 대한 소개와, 후배 예술가들이 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기획한 오마주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이 중에서도故 백남준의 기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고, 그 경험으로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자. 김상돈 작가는故 백남준의 1989년작 <자화상>을 재해석해 <TV경-자화상>을 작업했다.故 백남준의 <자화상>은 자신의 얼굴을 그린 초상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비추는 장치로 작품을 사용했다.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故 백남준의 <자화상>과

<TV경-자화상> 모두 TV를 오브제로 한다. 화면에는 해외를 많이 다닌 그를 표현한 지구본, 그가 음악가로도 유명했던 사실을 상징하는 피아노 등이 구성돼 있다. 오마주 작품인 <TV경-자화상>은 원작과 달리 브라운관 속을 비워내어 TV가 벽을 관통하도록 설치했다. 그리고 이는 벽 너머에 있는 카페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박주현 도슨트는 “작품을 통해 보이는 카페는 지역 주민 협의회가 운영하는 곳이다. 카페에서도 이 전시실이 보인다. 이를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창신동의 주민과 과거 창신동에 살았던 백남준이 작품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레벨라인 작가는故 백남준의 <태내기 서진>과 백 작가의 유치원 친구 이경희 여사의 회고록 일부를 이용해 <백남준의 책상>을 만들었다. 책상 위에 있는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라디오와 TV, 프로젝터가 작동해 백남준의 기억이 책상 위로 펼쳐진다. 이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은故 백남준이 자신의 필름 <전자 달>에 사용했던 드뷔시의 <달빛>이다. 전시를 관람한 최예빈(숙명여대 1) 학생은 “<백남준의 책상>이 제일 인상 깊었다. 그의 일기를 훑어보는듯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문-문-문>, <웨이브>, <수-월>, <피아노 테이블>, <버추얼 뮤지엄>, <백남준 아카이브를 찾아서>, <테크노 부처> 등故 백남준의 기억을 열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공간을 채웠다. 사람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방법이 다르듯,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백남준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그를 기억할 것인가.



▲김상돈의 <TV경-자화상>



▲레벨라인의 <백남준의 책상>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환상 너머의 **진심**을 전하는 사람

아트토이 아티스트 오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rakTANG(락탱)' 오태정(26) 작가는 미술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중에서도 인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녀는 '아트토이(Art-toy) 아티스트'다. 아트토이 아티스트란 캐릭터로 인형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녀는 2015년에 'rakTANG'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아트토이 아티스트로 활동한 지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만, 중국, 홍콩, 일본 등 수많은 해외 전시와 페어에 참여했을 정도로 그녀의 이력은 화려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의 길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부모님이 그녀가 미술을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술에 대한 그녀의 열망만큼은 늘 한결같았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만들고 수집하는 것을 좋아해, 중학생 때 인형을 만드는 동아리를 결성했다. 고등학생 때도 인형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 고등학교 3학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순수했던 열정이 결국 그녀가 바랐던 미래를 가져온 셈이다.

그녀의 작품은 사회적 약자, 즉 '어른 아이'를 주제로 한다. 어른 아이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은 아직 아이인 상태로 멈춰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면 하대해요. 인간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불편을 가진 사람을 혐오하는 게 슬펐어요."

따라서 그녀는 작품을 통해 편견 없이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이 스토리 덕분에 제 캐릭터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제 작업 슬로건 중 하나가 '환각, 환상을 넘어서'예요. 사람들이 캐릭터를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말하면서 정작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 혐오하는 것이 슬퍼요. 제 작품은 어차피 환상이예요. 현실이 아니예요. 캐릭터를 쉽게 받아들이듯이 그 환상을 넘어서 인간 자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녀는 캐릭터의 이름을 짓지 않는다. 캐릭터의 이름을 정하는 순간, 캐릭터는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또 캐릭터의 성별도 정하지 않는다. 남성성과 여성을 이분화해 성향을 부여하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 자체'를 사랑스럽게 봐주기를 바랐던 맥락과 같이, 캐릭터가 그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되길 바랐다.

그녀는 국내를 넘어 수많은 해외 팬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팬'은 늘 특별했다. 힘들었던 순간마다 팬의 존재가 활동의 원천이 됐기 때문이다.

"저를 보러 늘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자필로 편지를 써오기도 하고 제 작품을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선물해주시기도 하고요. 물론 새로운 팬분들께도 감사하지만 늘 봤던 그 얼굴, 꾸준함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팬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팬과 얽힌 인상 깊은 일화도 소개했다. 처음 데뷔했을 때, 전시 마지막 날 작품을 사간 팬이 1년이 지난 뒤 SNS를 위해 그녀를 다시 찾아온 것이다. 작품을 소장한 여가는 팬의 마음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값진 선물이었다.

이런 그녀에게도 난관은 있었다. 아무리 열정이 많은 그녀도 학업과 작업을 병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무기력증을 그녀도 피해가진 못했다. 경제적 현실의 벽도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극복 비결은 따로 없었다. 그저 시간과 부딪치는 게 답이었다.

"내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기회가 영영 없는 건 아닌가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해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 그냥 울면서라도 어떻게든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녀지만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듯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 또, 올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바람이다.

"땀을 흘리고 싶어도 못하고 참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내일이 없었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술을 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자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인데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때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해요. 내가 선택한 길이 가장 후회가 적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해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오 작가는 그녀의 집에서 방 하나를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 레진과 우레탄을 사용할 때는 방독면과 장갑을 끼고 작업한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인형들. 그녀는 각 캐릭터를 그들의 이름 대신 버전으로 구분한다.



▲그녀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 'movement for real me'. 영화 <블랙스완>에서 소녀가 백조에서 흑조로 변하듯이, 그녀는 캐릭터에 이를 드러내는 시도를 함으로써 이전 작품들과 달리 앞으로 작품의 성향이 변화할 것임을 은유했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손의 언어, 그림으로 울려 퍼지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 악수를 하곤 한다. 맞닿은 손을 통해 가장 먼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 손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로 따뜻한 피가 흐르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마침내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를 마주본다. 손이 가져다주는 솔직함에 빠져 수어(手語)를 그려내게 됐다는 박지후(32) 씨를 만났다.

그녀의 직업은 바로 '수화 아티스트'. 수화를 매개로 여러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스스로 창조해낸 명칭이다. 그녀는 현재 '지후트리'라는 이름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타투이스트, 퍼포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화를 활용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수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그녀는 가족의 반대로 미술의 꿈을 뒤로한 채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던 중, 1학년 겨울방학 때 우연히 관람한 '반 고흐 특별전'에서 잊고 지내던 미술에 대한 꿈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시 미술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단출하게 집을 꾸려 상경했다. 그러나 2년간의 서울 생활은 고생의 연속이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미술은 다시 뒷전이 됐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너 왜 서울 올라갔니?'라고 물으시는데 섣불리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때 '아! 나 미술하려고 왔지' 하고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후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좋을지 찾기 위해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가족'과 '장애'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죠. 삼촌이 화재 사고로 팔 한쪽을 잃으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가 한쪽 청각을 잃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애를 안고 있다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장애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장애를 미술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 수화를 그리게 됐죠"

첫 수화 그림의 재료는 영수증이였다. 여기저기 나뭇가지는 영수증을 모아 뒷면에 불펜으로 수어 동작을 그렸다. 6개월간 영수증에 꾸준히 그려온 수화 그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다채로운 색상을 입힌

그림으로 발전했다. 수어를 쓸 줄 몰랐던 그녀는 수화를 기초부터 배워야 했다.

"수어 동작은 수화 표준어 사전을 찾아 보면서 스스로 익혔어요. 특히 전시나 작품을 준비할 때 더 많이 공부하죠. 작품을 구상할 때는 먼저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수화를 공부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녀의 도구는 아크릴물감, 크레파스, 포토샵 등 종류에 제한이 없다. 친숙한 재료로 표현함으로써 수화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수화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특정이 있는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수화를 통해 그 답을 찾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재밌어요."

그녀가 수화 그림을 시작한 지는 약 7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그녀를 거쳐온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단연 <꽃>이다. <꽃>은 2014년도 작품으로, 그녀가 처음 밑그림 없이 술술 그려낸 그림이다.

"사람마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에 꽃을 피웠어요. 특히 <꽃>을 계기로 제 인생에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을 그리고서 전 사회에 출품도 많이 하게 됐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녀는 그림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타투를 새기는 핸드포크 타투도 하고 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싶단 생각에 핸드포크 타투를 시작했어요. 타투 작업에 사용되는 전동 머신 대신, 타투용 바늘로 점과 선을 한 땀 한 땀 작업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예요. 도안도 수화 도안을 주로 작업해요."

이외에도 그녀는 수화를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수화 퍼포머로 활동한다. 그녀는 2년 전, 연인인 현대무용가 서일영 씨와 함께 '후후탱크'라는 퍼포먼스 팀을 결성했다.

"후후탱크는 수어의 아름답고 역동적인 손동작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색깔이 나올지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글을 수화 문장으로 만들면, 남자친구가 안무를 짜서 퍼포먼스로 구현해요. 그것을 대중 앞에서 선보였을 때 느껴지는 관객의 눈빛과 분위기가 제게 다시 영감을 주죠"

세 가지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듯 싶지만, 그녀는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이 작품에서 얻은 울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는 신체 장애인

들과 농인들, 그리고 청인(비장애인)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예술 페스티벌을 여는 것이 목표예요. 그 때 제 그림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죠. 전시, 수화 워크숍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어요."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수화 아티스트 박지후



▲박지후(지후트리) 씨의 <꽃>. '꽃'과 '꽃이 피다'를 의미하는 수어에 뿌리가 거꾸로 솟아 있는 꽃을 형상화했다.

초봄 미세먼지의 '습격', 원인 알아보니...

한반도 주변 대기 정체...인공강우 실효성은 의견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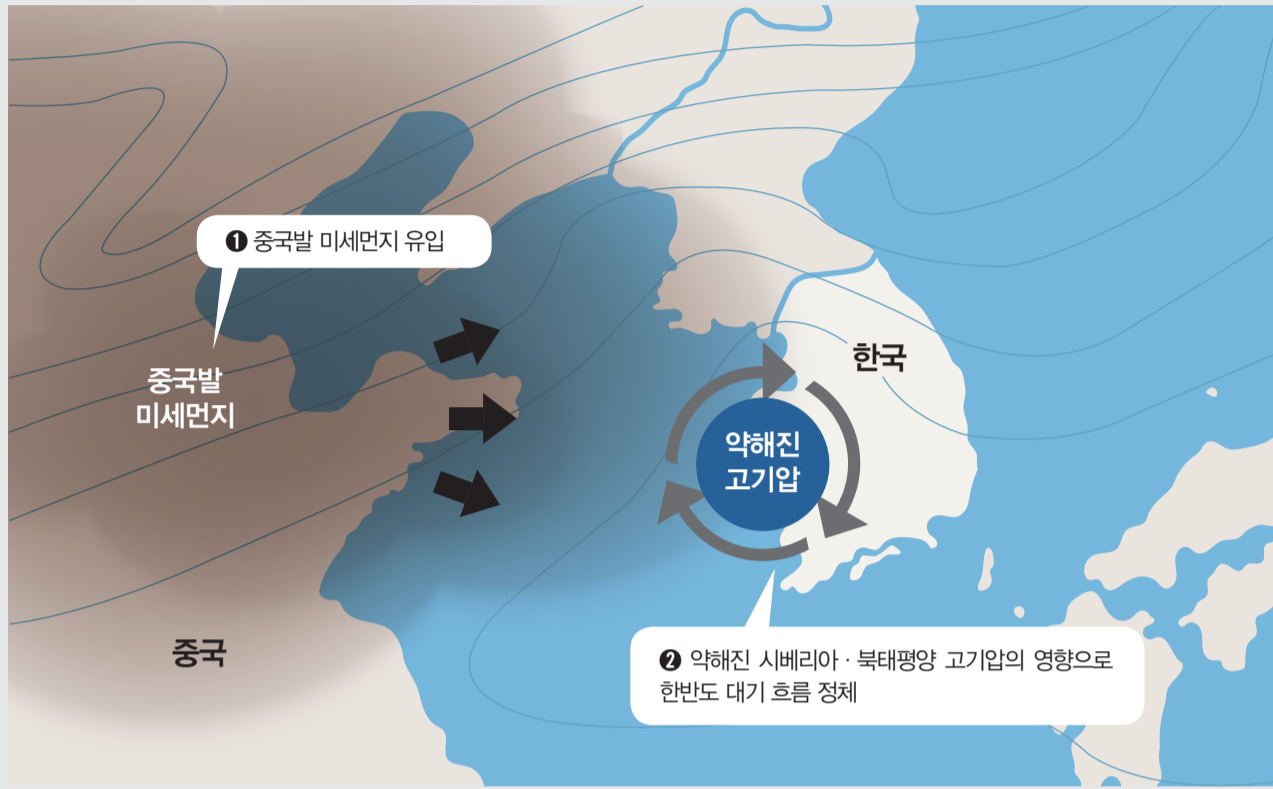
지난 3월 5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인 147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전날인 4일, 117 $\mu\text{g}/\text{m}^3$ 의 농도로 관측 이래 역대 2위를 차지하는 수치를 기록한 지 하루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제주도에도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제 미세먼지는 비단 서울·경기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세먼지에도 '종류'가 있다

미세먼지는 지름 10 μm 이하의 먼지를 뜻한다.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지름 2.5 μm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머리카락 굵기의 1/20에 불과한 크기다.

이에 대해 이만호(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보통 미세먼지 중 2/3가 초미세먼지"라며 "초미세먼지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폐 깊숙이 흡수돼 인체 유해성이 높다"고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여기에 '2차 생성 미세먼지'도 거론되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3일 중 12일 동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1 m^3 당 35 μg 이상)'을 기록했다.

있는 상황이다. 2차 생성 미세먼지란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출구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대기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미세먼지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국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 2차 생성 미세먼지가 72%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가뭏버린 대기

그렇다면 왜 미세먼지는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미세먼지의 원인은 크게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으로 나뉜다. 국내 요인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 변화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겨울철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베리아·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한반도 대기의 흐름이 정체됐다. 실제로 올 초봄의 평균 풍속은 초속 1.8~1.9 m/s 로 평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정도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활동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 대기의 기압 배치가 변했고, 이 때문에 북풍 기류가 불어오지 않아

대기가 정체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외 요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꼽을 수 있다. 대기가 정체된 와중에 중국에서 불어온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경우 국외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반기성(케이웨더) 센터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영향 없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긴 어렵다. 이번처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중국 베이징에 스모그 경보 가운데 두 번째로 심각한 황색 경보가 두 차례 발령됐다. 이 시기와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가

유사해,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 1월 환경부는 공개 자료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의 영향 중 국외의 영향이 약 40~70% 정도라고 언급했다.

종합해보면 중국에서 미세먼지는 계속 불어오는데 '얕은 데 덮친 격'으로 예년보다 한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 안에 갇혀버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인공강우, 과연 실효성 있을까

극심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환경부는 중국과의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통한 공동실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공강우 기술이란 이미 형성돼 있는 구름에 인위적으로 작은 얼음 결정을 생성해 눈 혹은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눈 혹은 비는 일정량 이상의 무게를 넘어가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져 인공강우가 된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약 10 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시간당 약 0.1~1 mm 의 강수량을 발생시키는 것이 한계라는 점이다.

현재 인공강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인공강우의 실효성에 관해 배보람(녹색연합 사회전환팀) 팀장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인공강우가 잡아 끌어내리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 활동가는 "일정량의 강우가 미세먼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인공강우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들리지 않는 소음, 재밍 시그널

"오, 트럼프 나온다!"
'지지직- 지지직'
"엥, TV가 왜 이러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 순간, 갑자기 화면이 끊겨 당황했을 것이다. 특정 채널에 문제가 있나 싶어 채널을 돌려봐도 모두



마찬가지. 대체 왜 모든 방송국에서 일제히 이 같은 방송사고가 발생한 것일까?

이는 바로 '재밍(Jamming) 현상' 때문이다. '재밍'은 국방전술 중 전자방해 전술의 한 종류다. 즉, 제3자가 고의적으로 전자파를 방사해 발신자와 수신자 간 전자파 교류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밍의 원리는 간단하다. A가 B로 보낸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를 C가 더 세계 송신해 A가 보낸 신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원(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는 "친구와 대화할 때 누군가 옆에서 더 큰 소리로 떠들어 대화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을 위해서는 '신호(Signal)/[자연잡음(Noise) + 간섭(Interference)]'의 수식 값이 초기 통신 설계 시 설정한 기준 값을 넘어야 한다. 이를 2차 북미정상회담에 비추어 보면 분자에 해당하는 '신호'는 수신자 즉, 방송국이 전달받으려 하는 전자파이고, 분모의 '자연잡음(Noise)'은 자연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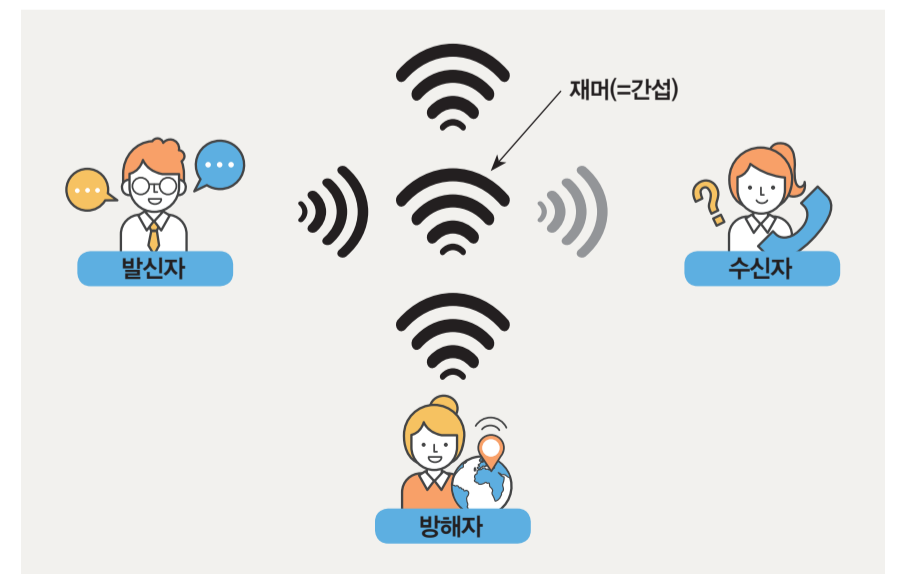
존재하는 잡음을, '간섭(Interference)'은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트럼프 측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전자파를 의미한다.

이 중 간섭을 '재머(Jammer)'라고 일컫는다. 이때, 재머의 크기가 커져 분모가 분자보다 커지면 수식 값이 작아지면서 그것이 기준 값을 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자파 교란이 발생한다.

재밍은 공격 대상이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이 존재한다. 그중 '대역 잡음 재밍'은 방해자가 상대 측에서 사용할 가능한 주파수 대역 전체에 넓게 신호를 보내 전자파를 방해하는 기술이다. 이는 공격 대상의 주파수 대역을 정확히 모를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모형인 '주파수 추적 재밍'은 공격 대상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재밍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공격하려는 신호가 계속해서 주파수 대역을 바꾸면 그 주파수를 따라다니며 전자파를 방해하는 모형이다.

예를 들어, 공격할 주파수 대역이 A라면 그에 맞춰 방해 신호를 내보낸다. 그러다가



공격 대상이 주파수 대역을 B로 바꾸면 다시 B를 추적해 그에 맞는 재밍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트럼프가 등장하는 순간 재밍 기술을 사용한 것일까? 이는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원격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재밍은 이처럼 국방·경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계에서는 재밍 신호를 2차적으로 교란시키는 '항재밍' 기술도 연구 중이다.

정영아 기자

mhbtd0330@naver.com

· 삼 학 송 ·

‘다행’

얼마 전 우리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새내기게시판에 어느 학교 학생회의 면접 과정에 대한 고발이 게재됐다. 내용인즉슨, 학생회 면접의 진행 방식과 면접관의 질문 및 태도가 불편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상황을 겪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며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해당 학교의 면접 논란은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면접을 응시한 학생들의 증언들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면접관 10명 이상 대 피면접자 1명으로 면접이 진행됨 ▲면접장에서 면접관은 소파에, 피면접자는 바닥에 앉은 채 면접이 진행됨 ▲통금 시간 10분 전에 선배가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면 나올 것인지 물음 ▲선배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인지 묻고, 한다고 대답하면 '한다고?'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면 '선배가 시키는데 하지 않겠다고?'라며 반문함 ▲친구와 함께 지원했는데 혼자 불으면 어떡할 것인지 묻고 혼자라도 하겠다고 대답하면 '의리가 없네'라고 말함 ▲추량을 묻고, 술을 잘 못 마신다고 대답하면 인상을 찌푸림 ▲피면접자가 대답할 때마다 비웃으며 조롱함 ▲장기자랑을 강제로 시킴.

위 사실이 공론화된 이후, 커뮤니티에는 해당 학교 학생회는 당장이 사건에 피드백을 하세요라는 글이 게시됐고, 많은 이들이 이에 동의하며 학생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해당 학교 학생회와 학과 소속의 단과대학 학생회는 에브리타임과 페이스북 등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두 문건에

따르면 학생회는 공론화된 내용이 모두 사실임과, 그에 대한 책임까지 인정했다. 또, 대자보를 부착하고 면접 매뉴얼을 수립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며, 이를 계기로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악습과 부조리를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생들이 학생회의 사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상황은 일단락됐다.

제3자의 눈으로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 않던가. 누군가 짝 막혀 있던 묵은 악습에 용기를 내어 고발의 불꽃을 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둘씩 연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대학이라는 작은 세상을 바꾼 것이다.

당시 커뮤니티 댓글 중 특히 공감되는 것 몇 가지가 있다. "요즘 애들이 그냥 당할 줄 아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사회에서 매장 당함" 등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으니 그에 맞춰 우리도 변해 가야 한다는 내용과, "처음 면접 관련해서 이견 아니라고 올려준 애도 멋있고, 같이 화내준 애들도 많아서 다행", "애들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 파악하고 있어서 다행", "애들이 깨어 있어서, 화낼 줄 알아서 다행" 등 학생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줄 알게 화낼 줄 알아서 다행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세상은 조금 불편한 구석을 해소하면서 발전해왔다. 더 불편해하고 분노해야 사회를,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학우들이 불편한 일에 불편해할 줄 알고, 분노할 일에 분노할 줄 알아서 참 '다행'이다.

강예림 편집국장



새 학기를 맞아 학내 게시판은 동아리 부원과 중앙기구·학생회 국원을 모집하는 포스터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일부 포스터가 게시판 밖까지 부착돼 있거나 다른 것에 덧붙여있는 등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장학팀은 "지정된 게시판에만 포스터를 붙이도록 권고하고 그 개수도 제한했지만 속수무책"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동아리연합회는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라 동아리 간 자리싸움을 할 정도"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희승 기자

기자수첩

지난 호 신문에 실린 기사 '성인용품 입문,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를 취재하며 정말 부끄러웠다. 기사의 소재가 성인용품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나의 부끄러움은 무지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발단은 교양 '성과 사회'를 강의하시는 최은영 교수님의 인터뷰였다. 인터뷰 전부터 관련 분야를 특히 신경 써서 공부한 후 질문지를 준비했다. 그런데 막상 인터뷰를 하며 내가 던진 질문에 돌아온 것은 교수님의 꾸지람이었다. 질문 중 사용된 '남녀 커플'이란 단어가 성을 그릇된 개념으로 규정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남녀 커플'은 기성언론의 기사에서 인용한 단어였다. 기사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광고, 책 등 어느 매체에서도 성인용품을 '동성 커플'과 연관지어 설명한 경우는 없었다. 유명 성인용품 체인점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취재 차 다녀온 한 성인용품점은 제품 설명에서 그것의 사용지가 이성 커플임을 전제로 했다. 직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동성 커플'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대중매체와 성인용품 시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성 커플을 배제하고 있어, 교수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진 그것이 이상하단 감새조차 느끼지 못했다.

2012년 OECD가 실시한 '동성애자 관용 수준'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32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매체와 성인이 성인용품 담론에서 동성 커플을 속 빼놓은 것도,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나도, 동성애자를 '인정'이 아닌 '관용(寬容, 남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함)' 해야만 하는 사회 현실도 모두 '부끄러운' 사실이다. 이기연 기자

부끄러운 사실

#낙산세컷_조곤데유_의심_전에_확인부터!

심상우 기자



Comparison program Q&A section. Title: < 비교과 제도 실효성, 당신의 생각은? >. Includes questions and answers from students like 박민규, 차현석, and 조문근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their participation.

잠깐 타임!

네 동아리 타입은 뭐야?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이맘때쯤 학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기만 하다. 그중에서도 단연 동아리는 학생들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다. 교내 게시판을 장식한 수십 장의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고작 포스터 한 장만으로 즐거운 캠퍼스라이프를 보장받을 수는 없는 법! 아직까지 동아리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은 다음 기사에 주목하자. 교내 동아리 총 39개 중 지금도 신입부원을 모집 중인 동아리를 우리학교에서 분류한 타입별로 나눠 살펴봤다. 정수민 기자 sf1228@naver.com

- 나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 나는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

- 나는 음악을 듣거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 나는 학교 내부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 나는 그림 그리거나, 영상촬영을 좋아한다
- 나는 부원들과 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다

- 나는 여러 학술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 나는 매주 세미나, 탐방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나는 종교에 관심이 있거나, 종교를 갖고 있다
- 나는 다른 대학과의 교류 활동을 하고 싶다

TYPE A

TYPE A를 선택한 당신. 이 타입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동을 왕성하게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스포츠 동아리에 입부해보는 것은 어떤가? 우리학교 스포츠 동아리에는 야구 동아리 '타틀스', 축구 동아리 '버팔로', 농구 동아리 'UP',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피닉스', 검도 동아리 '한검회', 테니스 동아리 'HTM'이 있다. 이 중 타틀스, UP, HTM은 상시로 부원을 모집한다. 버팔로는 4월 25일까지, 피닉스는 4월 30일까지 한검회는 4월 13일까지 부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아두면 좋다. 타틀스는 매주 수·목요일마다 교내 풋살장에서 야구를 연습한다. 또 버팔로는 매주 화·목요일에 축구 훈련을 한다. UP의 주요 활동은 매주 토요일 교내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농구 연습이다. 피닉스는 실제 비행을 위해 지상 연습과 이착륙 훈련을 실행한다. 한검회는 매주 화·목요일에 체육 분과실에서 활동한다. 신입부원은 개인 진도에 맞춰 검도 기본동작을 어느 정도 연습한 후 실전에 나선다. HTM의 신입부원도 매일 오후에 교내 풋살장에서 라켓 잡는 법과 기본자세 등을 배운다.



TYPE B

TYPE B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평소에도 음악을 가까이하는 사람일 터. 소울이 가득한 공연·예술 동아리를 둘러보는 것은 어떤가. 바로 댄스 동아리 'N.O.D', 밴드 동아리 '들불', 오케스트라 동아리 'M.G.O.P', 클래식 기타 동아리 '한음', 극예술연구회 '낙산극회', 민족 예술 연구회 '탈패', 흑인음악 동아리 'TRIAx-4000' 등이다. 이 중 N.O.D는 6월 30일까지, 낙산극회는 3월 28일까지 부원을 모집하고 이외 동아리는 상시로 부원을 모집한다.

N.O.D에 가입하면 선배의 지도에 따라 여러 장르의 춤을 연습하게 된다. 들불은 학기말 정기공연을 위한 밴드 연습을 한다. 한음에서는 매주 1회씩 선배와 함께하는 기타 레슨을 실시한다. 낙산극회에 배우로 입부한 신입생은 한 학기 동안 기초발성과 발음 등을 다지고 스테프로 입부한 신입생은 단막극 구성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탈패에 가입한 부원은 먼저 배우고 싶은 악기를 선택한 후, 매주 화·목요일에 악기별 연습을 하게 된다. TRIAX-4000 신입부원은 함께 공연하고 싶은 부원과 팀을 이뤄 연습하거나, 동아리방에서 노래를 듣고 음악 작업을 하면 된다.



TYPE C

TYPE C에서는 창작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동아리들을 알아보자. 한 학기동안 공들여 완성한 작품과 끈끈한 부원들 간 우정은 덤이다. 여기에는 영화 제작 동아리 '다숨'과 만화 동아리 '매나니로'가 있다. 두 동아리는 3월 31일까지 신입부원을 모집한다. 다숨의 지원자격은 19학번 신입생으로, 19학번 이상은 2학기에 공석이 생길 시 모집할 예정이다. 매나니로는 18·19학번과 편입생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숨에 입부하면 촬영회 이후 영화 촬영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한다. 학기 중에는 영화 촬영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연출, 섭외, 리허설 등을 준비한다. 방중에는 7일 정도 독립 영화를 촬영한다. 이후 직접 촬영한 영상물은 공모전에 출품한다.

매나니로는 4월부터 프로젝트 팀을 나눠 손 그림, 소설 창작, 캐릭터 상품 제작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각 프로젝트는 매주 또는 매달 1회씩 돌아가면서 진행된다. 가급적 모든 부원이 여러 창작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 만화 박람회나 페스티벌 참가 등 외부 활동도 병행한다.



TYPE D

배우는 것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도 있다. TYPE D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지적인 선배들과 교양 있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쌓아나가는 재미는 다른 TYPE 동아리와 비교해도 결코 꿀리지 않는 쓸쓸한 재미를 보장한다. 현재 신입부원을 모집하는 학술 동아리에는 '셈들', '경제학연구회', 'DC&M'이 있다. 그중 셈들과 경제학연구회는 상시로 부원을 모집하고, DC&M은 1학기까지 모집한다.

셈들에 가입하게 되면 매주 역사, 영화, 경제 분야의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다. 각 세미나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발제문을 작성해 의견을 공유하거나, 하나의 이슈에 대한 여러 시각차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탐방 등 외부 활동을 병행한다.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매주 시간을 정해 진행되는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연구회는 경제·시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DC&M은 컴퓨터공학 분야의 지식을 여러 프로젝트로 구성해 연구한다.



TYPE E

TYPE E를 선택했다면 신실한 종교인이거나 종교와 관련된 활동에 흥미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최대 고비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생활이다. 연애, 술, 유흥 등등... 속세의 유혹은 신실한 마음을 두드러근 한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대학생활과 신앙생활을 함께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종교 동아리다. 교내에는 총 5개의 종교 동아리가 있다. 가톨릭 동아리 '모사리오', 기독교 연합동아리 'CCC', 'JOY 선교회', 'UBF', 'TVF'다. 이 동아리는 모두 상시로 부원을 모집한다.

모사리오에 입부한 신입부원은 매주 담당 지도 수녀와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매 학기에 두 번씩 신부가 주관하는 미사에 참여한다. CCC는 매주 채플 시간과 모임을 가진다. JOY 선교회는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성경을 읽거나 찬양하는 정기 모임을 연다. UBF에 가입하면 매주 1회씩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 캠퍼스 선교 단체 IVF는 매주 월요일에는 'Let's Pray'라는 이름의 기도모임을, 매주 화요일에는 성경공부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소그룹' 시간을 갖는다.



야! 너두 동아리 만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리는 '정동아리'다. 그러나 신생 모임이 처음부터 정동아리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법. 현재 대규모로 성장한 정동아리들도 모두 올챙이 시절을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올챙이란 '소모임'이다. 동아리를 만들려면 먼저 소모임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 이때 소모임은 소속인원이 특정 단과대로 치우치지 않고, 구성원 수가 10명이 넘어야 한다. 소모임을 개설한 이후에는 한 학기 동안 성실히 활동해 실적을 쌓는다. 만약, 활동을 게을리 한다면 소모임 딱지를 떼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긴 소모임은 심사를 거쳐 준동아리로

승격될 수 있다. 물론, 심사에 통과된 소모임에 한해서다. 심사는 1년에 단 두 번, 각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이뤄진다. 심사 대상에 오른 소모임은 모임 회칙을 포함한 모임 소개서 40부와 10분가량의 모임 소개 및 실적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교내 동아리 회장들로 꾸려지는데,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 2/3 이상이 동의해야만 준동아리로 최종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고배를 마시는 모임도 적지 않다. 그런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모임이 기존 동아리와의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동아리를 그대로 모방한 경우 준동아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 정치성을 보이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경우, 혹은 활동 내용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동아리 심사에서 불리하다. 다시 말하자면 모임의 성격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모임이 단순히 술자리를 갖거나 맛집을 탐방하는 등 유흥에 그치지 않고, 개성 있고 유익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준동아리 자격을 얻은 모임은 다시 1년 동안 활동 실적을 쌓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정동아리로의 승급 여부를 가리는 관문이다. 이때 심사 방식은 소모임에서 준동아리로의 승격 심사와 같다. 만약, 심사에 합격해 정동아리가 되면

매 학기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65만 원까지 동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아리방 입주권과 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